



市政新聞

(2026년 8월 6일 목요일 19면)

채승우 의원, 옛 성동구치소 부지 현장 점검

안전·주민불편 최소화 당부

송파구의회 채승우 의원은 지난달 30일 첫 공식 의정활동으로 옛 성동구치소 개발부지를 전격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세심히 점검했다.

이날 현장 방문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(이하 SH공사) 관계자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들이 동행했다.

채 의원은 SH공사로부터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, 향후 공사 일정, 현장 안전관리 및 주민 민원 대응 체계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후 사업 부지 전역과 인근 지역을 직접 순찰했다.

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대규모 공동주택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·복지·공공시설이 대거 들어설 핵심 개발지역으로, 향후 가락2동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주거 환경과 생활 인프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주요 현안 사업지다.

채 의원은 이번 점검에서 공사 차량의 진·출입 동선과 운



채승우 송파구의원(가운데)이 옛 성동구치소 개발부지를 현장 점검 하고 있다.

행 시간 관리, 어린이 통학로 확보, 보행자 안전대책 등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체크했다. 아울러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자체가 주민 소통 및 공사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어떤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인지도 함께 점검했다.

홍준성 기자 / roff1116@naver.com